

기관 돋보기 |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함께하는 복지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 꿈꾼다”

충주시 호암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송덕원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0년 개관되어 도내 97,932명(21,231 기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와 217개소의 장애인 시설·단체 중 사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의 일원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6회 연속 A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송덕원은 1960년에 개원하여 도내 10여 개의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하며 약 70년 간 장애인복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어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편집자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승한 관장)은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최우선의 서비스 원칙으로 삼으며 ‘함께하는 복지! 행복한 장애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중심 복지 서비스를 구현, 이용인 중심 삶의 질 향상, 종사자 중심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등 3대 목표를 세우 추진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관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인권전문강사 자격과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2020년부터 인권복지관을

6회 연속 보건복지부 ‘최우수 기관’ 선정
코로나시대 대응할 스마트 복지사업 추진

지향하며, 인권 교육이 필요한 충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콘텐츠 개발과 인권토크 콘서트, 인권캠프 등을 개최해 충북 지역 전체에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설립 이래 6회 연속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밖에도 2012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충북 중증장애인일감지원사

업 지역 특화부문 전국 최우수 선정, 2014년 정보문화유공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201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평생교육, 권익옹호, 재활서비스, 마을 복지, 직업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250명 이상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도내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충북형 장애인 자립모델’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주민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충북도 광역사업 전담부서팀을 신설하여 도내 11개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단위 지방 사업을 수행하며 2023년까지 12개소 장애인복지관에 발달장애인 특화 평생교육지원사업이 안정적으

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한 관장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차별, 방임 등 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가상화에 적합한 복지관의 서비스를 접목하는 실험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평생교육과 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E러닝교육사이트를 개발하여 도내 장애인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앞으로 도내 장애인들의 평생설계 지원과 여가문화서비스 제공, 인권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연계 강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고급 교육 제공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충북지역의 장애인복지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복지관 이용자들이 문화여가지원사업 하모니카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 만0~5세 아동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6만1000여 명 대상... 아동수당 계좌로 직권입금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부담을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만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6일까지 출생한 만 0~5세 아동으로,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가정에서 양육 중인 아동 등 6만1000여 명이다.

충북도는 예비비 승인 절차 등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의회 의결이 끝난 후 17일 시군에 보육재난지원금 61억원을 교부했다.

시군에서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에서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신속히 만0~5세의 아동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선정 후 아동 1명당 각 10만원씩 연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개별신청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연내에 추진하고자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직권으로 지급된다.

단, 사전에 도에서는 15일 보육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을 위한 직권신청 및 개인정보 활용 안내 공고문을 누리집을 통해 게시했다.

윤비룡 (사)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충북도와 교육청의 협의적 조율에 수차례 협의로 오면시간이 걸렸지만, 같은 시기에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0~5세 아동과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일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린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공동모금회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출범식

내년 1월 31일까지 이웃돕기 기금 70억7300만원' 모금 목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1일 이웃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날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박문희 충북도의회 의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충북 모금회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년 1월31일까지 70억7300만원을 향한 희망 릴레이를 진행한다. 7073만원이 모아질 때마다 상당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간다.

나눔 캠페인 참여는 충북 모금회 사랑의 계좌나 방송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이날 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충북 64번째 회원이 탄생했다.

(주)에코프로를 운영하는 이동재 대표

이사는 이날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에코프로는 2011년부터 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과 매달 헌혈, 환경정화활동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노영수 충북모금회장은 “각계각층에서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해 사랑의 릴레이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사랑과 정성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 보육정책 지자체 평가 '대상'

배영석 보육지원팀장 대통령상 표창으로 '겹경사'

제천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1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배영석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장이 '2021 보육 유공자 대통령상'을 표창해 겹경사를 맞았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별 보육교사 처우개선도, 예산집행관리, 공보육 확충 등 보육정책 7개 지표에 대한 추진 성과를 측정했다.

제천시는 보육교사 휴식보장,

어린이집 급식 안전성 확보, 농촌 지역 보육 사각지대 해소, 열린 어린이집 활성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보육 전반에 대한 세밀한 정책 추진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배 팀장은 2016년 1월부터 보육업무에 추진하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사각지대 해소, 사업 발굴, 보육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진 시장은 "코로나19로 더



'2021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천시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욱 어려운 보육현장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에 "아이들이 행복해야 가정

행복하고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듯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에 도내 세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총 20억 투입...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역할 수행

제천에 도내 세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된다.

충북도는 2022년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제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11월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신청한 제천시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최종 선정했다.

본 사업은 도비 10억원과 시군비 10억원을 합한 총 20억원을 투입되며 2개년에 걸쳐 진행된다.

1년차(2022)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국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2년차(2023)에는 센터 작

공·완공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제천시 신월동에 들어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해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충북도는 2020년 괴산군을 시

작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로컬푸드와 공공급식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수입농산물 증가에 대응할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첫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올해 괴산에서 문을 열었고, 내년 초 옥천에서 두 번째 센터 착공에 들어간다.

진천군에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충북도 내년 초 신규 설치 중부 4개 군 관할

충북도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설치로 도내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도내 학대위기에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내년 초 진천군에 충청북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충북은 청주와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한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청주·증평·진천·음성)과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보은·옥천·영동·괴산),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충주,제천,단양)에서 아동보호

등을 나눠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매년 아동학대 의심건수 및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진천군 진천읍 문화4길 29 3층에 설치되며, 4개 군(증평, 진천, 음성, 괴산)을 관할한다.

지난 11월 18일 충청북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새단장(리모델링)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응급조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로 확대되며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진천군에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중부권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피해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시, 신봉동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장애인·비장애인 공동 이용 복지문화·여가공간

청주시가 오는 2031년까지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범택 시장을 비롯한 장애인복지 관계자 등 15명은 장애인복지타운 확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사항,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신호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등에 대해 보고한뒤 장애인복지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은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해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역 수행결과 지난달 30일 9차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수용돼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고시까지 마쳤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주)연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가 도시관리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사항, 재해영향성검토, 교통신호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등에 대해 보고한뒤 장애인복지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시설 결

정을 시작으로 오는 2031년까지 단계별로 장애인복지타운을 확대 조성해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복지문화·여가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 내에는 지난 2014년 건립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2019년 건립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가 운영 중이다.

시는 이곳에 장애인문화·예술 시설, 재활치료시설, 장애인수련, 장애인체육 교육시설 등 지역의 복지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추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건국대, 충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수탁 운영

소규모 어린이집 등 급식위생·영양관리 책임



충주시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단이 2일 충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주시가 2일 중앙합의실에서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충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은 2022~2024년까지 3년간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위생·영양교육 등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또 어린이 건강멘토로서 식단·레시피·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 올바른 식습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특화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과 영양 관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다.

시는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 위생·안전·영양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및 성장단계별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해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길형 시장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지난 10일 충북혁신도시 내 '맹동혁신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마더센터'를 개소했다.

충북혁신도시 공동육아나눔터·아이사랑마더센터 개소

공방놀이터·세계문화여행 등 상시프로그램 지원

충북혁신도시 내에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됐다.

음성군은 지난 10일 충북혁신도시 내 '맹동혁신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마더센터'를 개소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으로 품

앗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음성형 아이사랑마더센터와 병행해 운영함으로써 가족기능을 강화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방놀이터, 책놀이터, 세계문

화여행 등 다양한 상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마더센터 프로그램은 '조물조물 오감만족', '도란도란 공예교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vms043@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신선식품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병류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당일)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영동군 '가족센터SOC' 전국 최우수 선정

우수사례 공모서 '최우수 기관' 여가부장관 표창

영동군이 가족센터SOC 우수 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가족센터 SOC 건립추진 지자체(9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가족센터의 공간구성 적정성, UD계획 안전성,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했다. 영동군은 짜임새있는 공간 구성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인정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영동군 가족센터는 1층 로비 공간을 중심으로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및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 배치로 이용자의 시인성 및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에 마을평상과 사이마당 및 가족공원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 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동군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돼 총 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다. 연면적 1천420㎡(지상 2층)의 규모로 공동육아나눔터,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작은도서관, 다문화자녀언어교실, 교육실, 상담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내년 9

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같은 부지내에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나란히 건립 중이어서 두 시설이 준공되면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체계적인 가정양육서비스를 지원해 두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산군이 지난 10일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산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정착 지원에 나서

과산군이 지난 10일 군청에서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자영 군수를 비롯해 과산성모병원 내수연 대표, 과산서부병원 박영숙 대표, 과산군사회

복지협의회 최은목 회장, 과산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석수 센터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산군은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기관 간 협약 사항을 조율하고 지원을 총괄하며, 각

유관기관은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나서 예정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는 민간단체와 상호협력해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산성모병원·과산서부병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검진을, 과산군사회복지협의회는 식품 및 생활용품, 과산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동군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군내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아동 가정의 위기 해결 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동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협약

지역 아동들에 따뜻한 도움 손길, 나눔수목 희망 썬어

영동군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와 7일 군수 집무실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이 협약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아동 가정의 위기 해결 능력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 본부는 그동안 아동 결연후원 사업을 통해 영동군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아동 결연 후원과 결연 후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필요하기에 이번 협약식까지 이어졌다. 영동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내 어려운 아동에 대해 후원 서비스 연계 지원 및 후원자(차) 발굴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영동군 아동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을 통해 두기관은 영동군 지역사회 아동을 돕는 나눔 문화 확산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의 효력은 이날부터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 유지된다. 이날 영동군 후원 1호가 되는 박세복 영동군수는 이벤트 행사로 카디리아저씨 초록모자를 직접 착용하고 기념촬영을 하였으며,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행복얼라이언스, 증평군 결식우리아동 지원 나서

3000만원 기탁... 138명에 주 5끼씩 '행복도시락 전달식'



(왼쪽부터)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수행 본부장, 홍성열 증평군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부 노영수 회장, 행복얼라이언스(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이 '증평군 결식우리아동 행복도시락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증평군 결식우리아동 지원에 나섰다. 지난 9일 증평군청에서 행복얼

라이언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증평군이 '증평지역 결식우리아동 행복도시락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는 홍성열 증평군수, SK아이이테크놀로지 이수행 본부

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부 노영수 회장, 행복얼라이언스(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이 참석했다. '결식우리아동 행복도시락 지원 사업'은 지역 단위로 사각지대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이 사업장을 둔 행복얼라이언스 멤버 기업과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민관협력에 기반해 결식우리아동에 '행복도시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증평에 사업장을 둔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후원사로 참여해 겨울방학 기간 중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 138명이 주 5끼씩, 총 5천 5백여 끼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3천만 원을 행복얼라이언스에 기탁했다. 기탁된 기부금은 군이 사각지대 결식아동에 '행복도시락' 지원에 사용된다.

'행복한 고령친화 과산' 만든다

군, 30억 투입 5개분야 추진 2025년까지 일자리 추가 발굴

과산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을 섬기는 행복한 고령친화 과산'의 비전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3.4%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 과산군은 일자리·돌봄·여가·건강 등 복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과산군만의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나섰다. 과산군은 '어르신을 섬기는 행복한 고령친화 과산'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사업비 30억여 원을 투입해서 5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개 분야는 안정된 노인일자리 확충, 총합한 건강·돌봄체계 구축, 활기찬 여가생활·사회참여, 효(孝)문화 확산 및 세대통합, 편안하고 안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이다. 과산군은 2025년까지 735개의 노인일자리들을 추가 발굴하며 총 2천개의 일자리를 활성화해 소득 창출의 기회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을 목표로 WHO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2022년에는 AI 돌봄로봇 500대를 도입하여 어르신 일상케어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총합한 건강·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싶도록 새로운 지역 사회 통합돌봄 모델인 '과산형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2022년부터 군비 1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시범운영하며, 노인맞춤돌봄센터를 활성화해 1천56명의 수혜자를 2025년 1천500명까지 확대한다. 활기찬 여가생활·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2021년 3개면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실버건강대학을 2024년까지 전체 면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대인 '선배시민 사회공헌단'과 재능기부 동아리를 육성·지원할 예정이다. 효(孝)문화 확산과 세대통합을 위해 3대 이상 가족이 함께 거주

하는 가구, 노부모 부양을 위해 귀향·귀촌한 가구에 매월 일정 금액의 효도수당을 2023년 이후 지원할 계획이다. 전 세대가 참여하는 효(孝) 공모전, 활력있는 노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노익장을 펴내는 청춘시니어 대회, 비대면 안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건강한 노년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집안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안심주택을 건립을 추진하고, 공공시설 신축 시 고령친화적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과산군은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궁극적으로 노인이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누구나 찾고 싶은 '행복한 과산'을 조성할 계획이다.

옥천군 축하지원금, 첫돌 20·5살 30만원



옥천군 군서면민협의회가 지난 14일 '첫 돌 축하지원금'과 '5세아 축하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대상 67가구에 150만원을 전달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군서 245' 본격 활동 시작

옥천군 군서면민협의회는 지난 9월 살기 좋은 군서면 만들기 위한 사업 '군서 245(군서면으로 이사오세요)'를 출범한 이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첫 돌 축하지원금'과 '5세아 축하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대상 67가구에 1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첫 돌을 맞은 아기 3명과 5세 아동 3명의 보호자가 참석했으며, 아기 통장에

축하지원금을 입금해 전달했다. 지원 대상자는 군서면에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선정했으며, 지원액은 첫 돌 아기 20만원, 5세아 30만원이다. 군서 245는 후원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군서면의 발전과 번영을 바라는 많은 주민이 후원에 적극 동참해 뜻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 채널을 넓혀 후원자를 늘리고 지원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군서 245는 내년부터 군서초등학교 입학생과 전학생에 대해 추가 지원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해 지원사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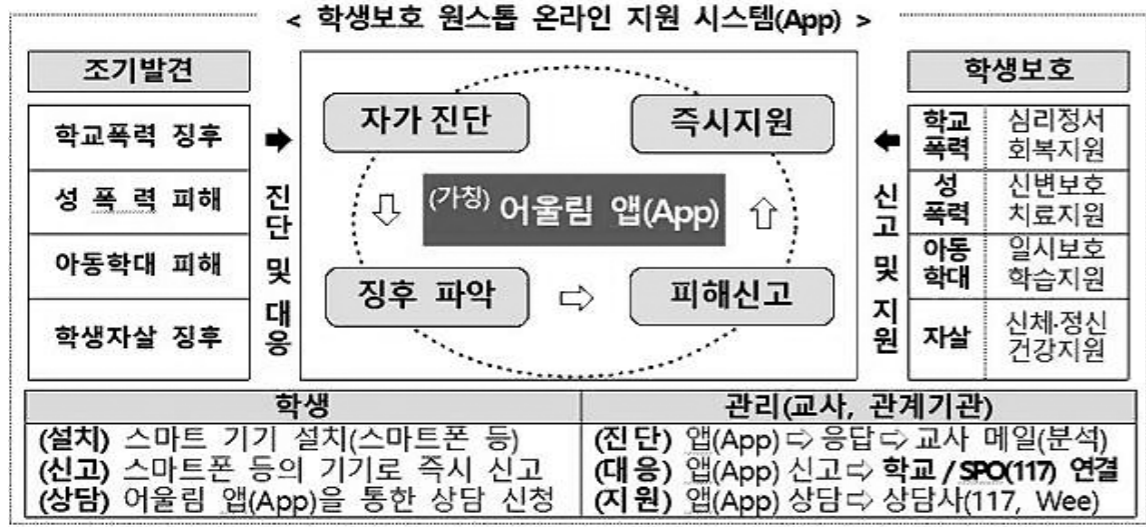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계재 개월 및 기탁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슬지 대리 (T.043-234-0840~2)

'학폭' 가해자, 전학가도 학생부 기록 남는다



학폭 위기 학생 조기발견·지원 '어울림앱' 구축 2차 가해 금지법 마련... 맞춤형 보호·치료 제공

전학 조치된 학교폭력 가해자가 졸업하면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또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폭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부처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위기 학생을 보호, 지원하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더 엄정하게 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한다.

가해 학생 기록 삭제와 관련 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심의절차,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 성범죄·아동학대 교원 직위 해제 근거 마련, 성범죄자의 학원 취업제한 강화 등 성폭력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한다. 중·고입 체육

특기자 선발 제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 적용 확대 등 폭력 학생선수·지도자에 대한 조치도 정비한다. 교사가 학폭 사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안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개발, 소송비·법률서비스, 수업 경감 등으로 지원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해자·신고자 접촉, 협박, 보복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피해학생의 신고가 없어도 학교폭력 징후를 감지한 교사는 학폭 조사를 하도록 내년 2월 가이드북을 개정한다. 아울러 학생 대상 폭력의 조치가 감지될 때 내년까지 학생이 온·오프라인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에 노출되면 즉시 감지해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자살위험 학생 조기 개입·치료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정신질환' 환자에 조기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첫 진단 이후 5년까지... '응급입원'한 경우도 지원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의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

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가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 초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이 이뤄질 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지원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 경우에도 비급여 치료비용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응급입원한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신질환 급성기 위험을 관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학생, 학교 안 다녀도 방과 후 활동 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중 '초·중·고·전공과 재학 중' 요건 삭제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17일부터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도전적 행동이 심해 정규학교를 이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원에서 2025년 50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출산·고령사회회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에 내년엔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이어 2025년에는 50만원까지 늘어난다. 더불어 내년부터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적응 및 자립수도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영아기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관련기

관 취임을 제한하는 직군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이밖에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한다. 그리고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서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등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및 시·도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임신·출산지원비 사용범위 늘린다

내달부터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사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가 임신부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처방 의약품 등 구입비에서 감기나 치과 등 모든 진료비로도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기존의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했으며, 2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하며, 임신부도 현행 출산

(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까지 가능하게 됐다. 건보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됐다. 요양기관에서 임신부의 진료비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08년 2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 100만원(태아 140만원)을 건보보험공단에서 신용카

드나 체크카드 등에 담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을 작성하여 임신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를 통해 임신·출산 확인정보를 입력하면 임신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배치 인원 확대

내년 4분기부터 수급자 2.3명당 1명으로 개선

요양시설에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도록 인원 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부대의견 결의문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현재 수급자 2.5명당 1명씩 배치하는 요양보호사를 내년 4분기부터는 수급자 2.3명당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의결하면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

준 개선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고자 요양보호사를 수급자 2.3명당 1명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령층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요양재정 안정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금(예산 수입액의 20%)을 확보하는 한편 요양시설의 부당 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현황'도 보고했다. 고령층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진행했고, 대상자의 86.6%가 추가접종을 완료했다. 유행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지난달 18일부터는 입소자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021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

우수 봉사자 18명 · 인증관리요원 13명 · 관리센터 6곳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는 '제16회 자원봉사자의 날(12.5.)'을 기념해 3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해동안 나눔과 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원봉사 유공자와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영석 회장은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시는 봉사자분들 덕분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 마음의 거리 좁히기를 실천하신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유공자 표창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3명, 충청북도지사 표창 8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12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표창 1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8명 등 총 32명이 수상했다.

이어 현재 활동 중인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중 최다실적 등록 기준으로 선정된 5개소를 대상으로 우수 자원봉사관리센터 현판을 증정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유공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3명)
홍복장학회(홍복양로원), 독고윤하(증평종합사회복지관), 박길희(단양장애인복지관)

● 충청북도지사 표창(8명)
권안영(단양장애인복지관), 김진숙(산남종합사회복지관), 박성자(나우리회), 윤효근(청주청남시니어클럽), 이점분(영동군장애인복지관), 장복화(재능나눔연합봉사단), 박종연(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목령종합

사회복지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2명)
김민경((사)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 김민지(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수희(오송종합사회복지관), 박영섭(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연보혜(무지개도서관), 우성완(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이아희(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이지선(무지개도서관), 이채린(산남종합사회복지관), 한은미(증평군노인복지관), 한진국(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 홍상은(청주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창(1명)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김영석 회장은 3일 '우수 사회복지자원봉사 시상식'에서 유공자 32명 및 관리센터 5개소에 표창을 수여했다.

- 김성열(바른컴퓨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8명)
김미자(나우리회), 김병훈(다사랑회), 김복숙(홍복양로원), 김재경(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박원직(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신복철(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이은주(영동군장애인복지관), 한원동(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 우수 관리센터 현판 증정 명단(5곳)
(재)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무지개도서관,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해야"

복지재단,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39.7% 폭력 경험 · 40.9% 인권침해로 이직 고민 등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등의 매뉴얼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사회복지실천연대는 지난 3일 청주시청 청사 앞에서 청주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 100년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 편에 앞장서 복지서비스 발전을 이뤘던 사회복지 종사자의 그늘진 이면에 대해 지역사회와 연대를 촉구했다.

지난 2019년 청주복지재단이 실시한 '청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복지기관 이용자들로부터의 폭력경험

이 39.7%, 인권침해로 인한 이직 고민이 40.9%며 57.9%가 스트레스성 질환, 28.1%가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연대는 성명서 발표 후 청주시의 사회복지 관련 각 부서에 민원해결 과정과 법적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단 구성지원, 각 시설 녹음용 전화기와 CCTV설치 지원, 사회복지 현장의 고소고발건에 대한 공동대응책 마련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등 처우에 관한 조례에 인권사항 포함 등 실질적 지원요청을 전달했다.

실천연대는 이날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출발점이 돼 모두가 웃는 복지현장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청주시의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주시의사회, 충북모금회에 성금 1천5백만원 기탁



청주시의사회(회장 양승덕)가 10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양승덕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주시의사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사회는 2013년부터 9년째 누적기부금액 1억1300만원 상당을 청주시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기탁했다.

양승덕 회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주시의사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의사회는 2013년부터 9년째 누적기부금액 1억1300만원 상당을 청주시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기탁했다.

2021 충북사회복지사대회 온·오프 개최

사회복지사 숙터뷰 영상 · 평생회원증 전달 · 유공자 표창 등 실시간 유튜브 500명 참여... 지역사회와 공감 · 소통 앞장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3일 '2021 충북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준환)는 3일 사회복지사 불만제로 숙터뷰 슬로건으로 '2021 충북사회복지사대회'를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비대면 혼합하여 동시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충북도 서승우 행정부지사 격려사를 시작으로 코

로나19 상황속에서도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한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로써 사회복지사 숙터뷰 영상 및 주제표어부분 공모전, 평생회원증 전달, 유공자 표창 등이 이

졌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참석 인원 최소화 방안으로 기관·시설 사회복지사들이 현장과 실시간 유튜브로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25년간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의 밑거름이 되어준 선배사회복지사 정일영 원장(프란치스코의집)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충북 사회복지사 대상' 수여식과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의견을 숙터뷰 퍼포먼스를 통해 2022년 6·1 지방선거 복지공약을 제안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김준환 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발취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사회복지관 운영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96회 사회복지포럼 개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충북사회복지관협회와 충북지역 사회복지관의 운영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96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와 충북사회복지관협회(회장 한창호)는 7일 '충북지역 사회복지관의 운영진단과 발전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96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의 기능이 강화되고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위기가 제기되어 기본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은 박경화 관장(삼보사회복지관), 신용규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홍석호 교수(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하고 협의회 김영석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대하고 사회복지학과)가 참여하고 협의회 김영석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 교수는 "사회복지관은 충북사회서비스원 설립, 커뮤니티케어 진행에 대비해야 한다"며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에서 박 관장은 "역량 있는 종사자 확보, 예산확보 등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주민조직화를 강화하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장학금 300만원 기탁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는 학교자원재활용사업으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센터장 박재국)가 7일 학교자원재활용사업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 300만원을 충북도교육청에 기탁했다.

이 장학금은 학교자원재활용 사업에 참여한 도내 희망학교 138곳으로부터 현 교과서 등을 수거해 조성됐으며 학생 30명에

게 지급된다. 충북광역자활센터는 2015년 충북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자원재활용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은 환경보전과 장학금 등 교육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환경보전과 나눔의 정신을 몸소 체험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체험중심의 실천 교육을 통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충북복지넷

www.043w.or.kr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원 최종 확정

올해 대비 7조9001억원... 국회 심의에서 정부안 대비 5390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료인력 양성·국립의료원 현대화 등 증액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89조5766억원 대비 7조9001억원(8.85%) 증가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며, 그 중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80조6484억원으로 전년 대비 6.4%(4조8706억원), 보건 분야는 16조8283억원으로 같은 기간 22.0%(3조295억원) 각각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공적연금 31조4921억원(전년 대비 5.0% 증가), 노인 20조4592억원(8.4% 증가), 기초생활보장 14조4597억원(9.3% 증가), 아동·보육 9조1820억원(7.3% 증가), 취약계층지원 4조1482억원(9.7% 증가), 사회복지 일반 9072억원(31.9% 감소) 등으로 책정됐다. 복지부는 일부사업의 종료와 사회복지제도지원 등의 지방이양으로 사회복지일반 분야 예산은 감소했다. 보건 분야는 건강보험 11조9242억원(전년 대비 10.7% 증가), 보건 의료 4조9041억원(61.9% 증가) 등으로 나누었다.

■ 주요 증액 내용

1.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 증액(질병청 생명안전자주성당도 +1,200억 원 포함 시 총 1,443억 원 증액)
2.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 증액
3. 영유아 보육료(+519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286억 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신설(+74억 원) 등 반영

■ 보건복지부 정부안 대비 증액 주요사업

① 방역대응 분야

-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8,704→1조 4,368억 원, +5,663억 원)
- * (21 추경) 1조 8,804 → (정부안) 8,704 → (22 확정) 1조 4,368억 원(21 추경 대비 △4,436억 원, 23.6%)
- (글로벌 백신 허브화)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 (33→89억 원, +56억 원)
- * (정부안) 33 → (22 확정) 89억 원(22년 신규)
-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150명 추가지원(960명→1,110명) 및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199개소) 음압시설 설치지원 (2,167→2,351억 원, +184억 원)
- * 장애인일자리 지원 (21) 1,596 → (정부안) 1,832

→ (22 확정) 1,853억 원(21 대비 +257억 원, 16.1%)

- * 장사시설 설치 (21) 558 → (정부안) 335 → (22 확정) 498억 원(21 대비 △60억 원, △10.8%)

② 보건 분야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등) 중앙감염병 병원 및 본원, 중앙외상센터 설계를 위한 착수금 (2,773→2,858억 원, +85억 원)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신규 설치 지방의료원(광주, 울산) 설계비 지원 및 신축·이전신축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지원 등 (1,657→1,703억 원, +46억 원)
- * (21) 1,433 → (정부안) 1,657 → (22 확정) 1,703억 원(21 대비 +270억 원, 18.8%)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225→337억 원, +112억 원)
- * (21) 363 → (정부안) 225 → (22 확정) 337억 원(21 대비 △26억 원, △7.2%)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정부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 (10조 3,992 → 10조 4,992억 원, +1,000억 원)
- * (21) 9조 5,000 → (정부안) 10조 3,992 → (22 확정) 10조 4,992억 원(21 대비 +9,992억 원, 10.5%)
- (공공야간·심야약국)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17억 원)
- * (정부안) 미반영 → (22 확정) 17억 원(22년 신규)

③ 사회복지/장애인 분야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예산 및 운영인력(27명→50명) 증원 (172→246억 원, +74억 원)
- * (21) 147 → (정부안) 172 → (22 확정) 246억 원(21 대비 +99억 원, 67.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설별 인건비 단가 0.2% 증액(7,695→7,710억 원, +13억 원)
- * 장애인거주시설(+11억 원), 지역자활센터(+1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0.13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0.45억 원), 아동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0.56억 원), 정신요양시설(+1.86억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시간 증가(월120→125시간),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 반영(2,006→2,080억 원, +74억 원)
- * (21) 1,523 → (정부안) 2,006 → (22 확정) 2,080억 원(21 대비 +557억 원, 36.6%)
- (청소년 생리용품) 정부안에서 지원* 개시 연령을 11→9세로 하향한 것에 이어, 지원종료 연령도 만18→24세 상향(+11만명, +46억 원)
- *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여성청소년(만9~24세) 대상 1.2만명 상당 생리용품 지원
- (청년 생활금융) 최근 금리인상을 감안하여 저소득 청년 대상 햇살론 무스 공급규모를 1,000억→1,400억원으로 확대(+60억 원)
- (에너지바우처)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순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8.2% 인상(10.9→11.8만원, +79억원)

④ 아동·보육 분야

- (영유아보육료)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 (3→8%),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3→6%), (3조 1,509→3조 2,028억 원, +519억 원)
- * (21) 3조 3,952 → (정부안) 3조 1,509 → (22 확정) 3조 2,028억 원(21 대비 △1,925억 원, △5.7%)
-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애아특수교사 및 치료사 수당 인상(30→40만 원), 담임교사(24→26만 원) 및 연장보육교사(12→13만 원) 수당 인상 등(1조 6,594→1조 6,880억 원, +286억 원)
- * (21) 1조 6,141 → (정부안) 1조 6,594 → (22 확정) 1조 6,880억 원(21 대비 +739억 원, 4.6%)
- (아이돌봄 지원)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6.6→7.5만 가구로 확대(+214억 원)
- * 만12세 이하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장애인·다자녀 가정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840시간의 돌봄서비스 보조(국비지원율 최대 90%)
- (임양아동) 보호대상아동 입학 지원을 위해 첫만남 바우처(22년 신설)와 동일한 금액의 입학축하금 200만원 신설(383명, +5억 원)
- 입학아동 양육수당도 1월15→20만원 인상(1.3만명, +53억 원)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12억 원)
- (가정위탁 운영)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경계선 지능아동 등을 보호하는 전문위탁부모에게 보호비 1월 100만원 신규 지급(433명, 36억 원)
- *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1월30~100만원 지급 중으로 지원 편차가 큼
- (청소년부모 양육비)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3만 가구)

■ 보건복지부 정부안 금액 최종 확정사업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가구 146만 2,887원→153만 6,324원)
 -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 (21) 4조 6,079 → (22 확정) 5조 2,648억 원(21 대비 +6,569억 원, 14.3%)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 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4,130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 * (21) 7조 6,805 → (22 확정) 8조 1,232억 원(21 대비 +4,427억 원, 5.8%)
 - (희망·내일키움통장)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I·II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 * (21) 913 → (22 확정) 1,083억 원(21 대비 +170억 원, 18.6%)
 - (상생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생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 (22 확정) 110억 원(22년 신규)
 -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 ** (22 확정) 3,731억 원(22년 신규)
 -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80→84.5만 개) 및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신규실시
 - * (21) 1조 3,152 → (22 확정) 1조 4,422억 원(21 대비 +1,270억 원, 9.7%)
 - (감염병대응 R&D)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 (21) 2,065 → (22 확정) 1,945억 원(21 대비 △120억 원, △5.8%)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출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단위:억원)

구분	2021년 본예산(A)	2022년 본예산(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출(A+B)	895,766	974,767	79,001	8.8
◇ 예산(A)	559,035	622,729	63,694	11.4
◇ 기금(B)	336,731	352,038	15,307	4.5
◇ 사회복지①	757,778	806,484	48,706	6.4
○ 기초생활보장	132,334	144,597	12,263	9.3
○ 취약계층지원	37,800	41,482	3,682	9.7
○ 공적연금	300,026	314,921	14,895	5.0
○ 사회복지일반*	13,326	9,072	△4,254	△31.9
○ 아동·보육	85,568	91,820	6,252	7.3
○ 노인	188,723	204,592	15,869	8.4
◇ 보건②	137,988	168,283	30,295	22.0
○ 보건 의료	30,300	49,041	18,741	61.9
○ 건강보험	107,688	119,242	11,554	10.7

* '사회복지일반' 분야 예산감소(△31.9%)는 일부사업의 사업종료 및 지방이양에 따른 것이며, 지방이양은 재원도 함께 이전
** (지방이양사업) 시설보유제도지정(지자체 사회복지유원 보수 등), 지역자활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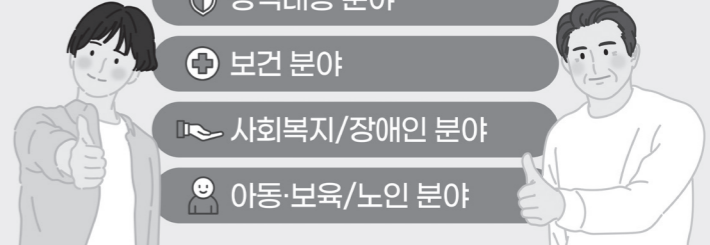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

방역대응 분야

보건 분야

사회복지/장애인의 분야

아동·보육/노인 분야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방역대응 분야 ▶ 총 1조 6,808억 원

- ☑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글로벌 백신 허브화
- ☑ 시각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보건 분야 ▶ 총 15조 3,826억 원

- ☑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생수당 지원 시범사업 추진
-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보건복지부

포용적 회복과 격차해소를 통해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회복지/장애인의 분야 ▶ 총 19조 3,298억 원

- ☑ 청년,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희망·내일키움통장)
-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증가,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 지원

보건복지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보육/노인 분야 ▶ 총 61조 835억 원

- ☑ 첫만남이용권(출산 시 200만 원), 영아수당('22년생부터 두 돌 전까지 매월 30만 원('22년) 지급
- ☑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장애아 특수교사, 치료사, 담임교사, 연장보육교사)
- ☑ 저소득 지역가정자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월 기준>)
-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30만 원 → 30만 1,500원'으로 인상(예산서 기준)

보건복지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보육/노인 분야 ▶ 총 61조 835억 원

- ☑ 첫만남이용권(출산 시 200만 원), 영아수당('22년생부터 두 돌 전까지 매월 30만 원('22년) 지급
- ☑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인상
-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인상(장애아 특수교사, 치료사, 담임교사, 연장보육교사)
- ☑ 저소득 지역가정자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4만 5천 원<월 기준>)
-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30만 원 → 30만 1,500원'으로 인상(예산서 기준)

복지광장

작은 실천으로 함께하는 자원봉사

정신건강

12월, 몸과 마음 돌아보기



김우혁
청주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는 '자유지의'란 뜻의 라틴어 Volun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발, 자주, 자유의지의 의미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 교통문제, 환경오염, 각종 범죄 등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이 있다. 이때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나서서 작은 실천이라도 조금씩 함께해 나간다면, 내 주변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응하기 위한 실천과 이를 뒷받침 할 제도적인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며, 재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실천방향을 모색해 마스크 만들기를 시작으로 이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자원봉사활동, 감염예방 방역활동, 의료봉사, 캠페인활동,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기존 자원봉사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자원봉사도 현재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있어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위기 속에서 한해 동안 현장에서 수고하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유공자를 발굴해 그들의 공적을 치하하고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들의 축제로 꾸며졌었다. 이전에는 너무나 당연히 즐거운 축제의장이었던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상자와 일부 관계자만 참여하는 축소된 행사로 진행했다.



연현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신가요? 신체건강은 물론 마음도 괜찮으신가요? 여러모로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때인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안되겠지만, 특히 날씨가 추운 이 시기에는 더욱 더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늘 오는 계절이지만, 우리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사계절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호르몬들이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호르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몸이 움직이지 하지 않으니, 마음은 아늑해 지지만 자꾸 쳐집니다. 몸이 처지면 기운도 없고 그렇다 보니 마음도 무기력해집니다.

현장의 목소리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김지환
베네치아주니어센터소동지 주임

비록 대면으로 소통할 순 없지만, 이런 소중한 기회를 빌려 나의 이야기가 전달된다고 생각하니 같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반갑기도, 설레기도, 부끄럽기도 하다.

는데, 장애인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게 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필자의 지인 중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지인이 한창 사회복지자를 하면서 지치고 힘들 때 해준 말이 나의 '지침'을 '즐거움'으로 전환시켜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나를 전환시켜준 말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이 돼요, 하지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즐기세요"이다.

자체로는 짜서 먹기 참 힘든 음식 중 하나이지만 달리 생각하면 소금은 모든 음식에 가미를 시키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의 존재는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클라이언트가 있기에 사회복지사가 있으며, 사회복지사가 있기에 클라이언트가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니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권이 상충되지 않도록 항상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그들의 '시선'에서 그들을 존중하며 장애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신인연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저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자 한국에 왔습니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 비자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

A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

국제결혼과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먼저 결혼이민(F-

6) 비자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한국 거주 후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동정

■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스페셜리더
▷시설장 김경민 / 12월 1일자

■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수형 / 12월 4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슬기 대리

복지정보 제공

[푸르메재단] 2022 이혼등이 재활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11개월)
- 신청기간: 2021년 12월 6일(월) ~ 2022년 1월 7일(금) / 이메일 접수
- 지원대상: 출생체중 2.5kg 미만 또는 재태주수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만 7세이하 장애 미등록 이혼등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이혼등이가정 / 국내 거주중인 등록·미등록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이혼등이 / 재활치료 중이거나 재활치료 계획이 있는 이혼등이
- 지원내용: 재활치료비(1인당 최대 200만원), 치료비 기타비용(1가정당 최대 120만원)
- 신청방법: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개인신청 불가)
-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 참고
- 선정발표: 2022년 1월 28일(금) 예정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02-6395-7010 / shj0923@purme.org)

[코아드] 코아드 자동문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송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 (착불 4,000~4,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02-553-3488

[바보의나눔] 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신청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면 전화해
-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방송)
- 기타: -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

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2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 → 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참조

[KT&G복지재단] 2022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용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 25855

[푸르메재단] 2022 메가스터디 장애어린이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1년 12월 1일(수) ~ 2022년 1월 14일(금)
- 지원기간: 2022년 2월 ~ 2022년 12월 (11개월)
- 지원대상: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중·고등학교 비장애 형제자매 50명 내외 (중등 20명, 고등 30명 내외)
- 지원내용: 온라인 강의 수강권(전과목 수강 가능) *교재비 자기 부담
- 지원금액: 중등 120만원, 고등 60만원 상당의 강의 수강권
- 지원기간: 최대 11개월
- 신청방법: 위와 동일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 참고
- 선정발표: 2022년 1월 28일(금) 예정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02-6395-7018 / jdh0619@purme.org)

자원 봉사자 모집

- ▶ **초중생 비대면 학습지도**
관리센터: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37-1487
- ▶ **마을연구활동 봉사**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85-0102
- ▶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청주청소년쉼터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31-2676
- ▶ **건강검진 문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99-5734
- ▶ **어르신 한글지도**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66-4761
-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16-1365
- ▶ **일반한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835-4288
- ▶ **녹음도서 모니터링**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37-5544
-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216-1391
- ▶ **공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21.12.1 ~ 22.1.31
전화번호: 043-835-428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보배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 연탄나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보배봉사단은 지난 1일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

에서 취약계층 가구(강서1동 행정복지센터 의뢰 3가구, 각 500장)를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배봉사단은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봉사단체로, 2020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원이레 상담사는 "작은 도움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도 소속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문

3차접종은 왜 맞아야 하나요?

- ▶ 2차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백신효과는 감소하고 돌파감염이 증가합니다.
- ▶ 3차접종의 예방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3차접종은 어떻게 맞을 수 있나요?

- ▶ 18세 이상 전 국민은 2차접종 3개월 후부터 3차접종이 필요합니다. * 안전백신접종자(1차접종), 면역저하자(2차접종)는 2개월 후부터 접종
- ▶ 예약(ncvr.kdca.go.kr)을 하시거나 잔여백신*으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카카오톡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여 당일예약 및 접종 가능
- ▶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은 예약없이 의료기관(문의후) 방문하셔도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은 안전한가요?

- ▶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 허가 및 각종 승인절차 등을 거쳐 안전성이 검증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85억회 이상 접종되었습니다.
- ▶ 3차접종 이상반응은 1·2차접종보다 크지 않고 대부분은 근육통, 발열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입니다. *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만/평

이창신 www.bokmani.com

회복탄력성

떨어진 만큼 자곤감

뒤어 오를 수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